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영난 심화

전북 제조업체,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국내 경제 둔화는 물론 전북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11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전북 기업의 영향 및 대응 전략'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57.4%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경영 활동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위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6%, '위험'은 15.7%, '일시적 위협'은 36.1%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북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3.3%가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비용 증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였으며, 이어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19.3%)', '환율 변동 및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16.7%)', '채고 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4.0%)',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12.3%)'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대해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예측 불가능(36.3%)', '더욱 빈번해질 것(12.7%)', '지금보다 완화될 것(11.8%)', '기타(2.0%)'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북 기업들은 최근의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

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불복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응답이 45.5%, '대비 필요하지만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나 응답 기업의 81.1%가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도별 특화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여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불과 2.1%에 그쳤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해 응답 기업의 44.1%가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강화'라고 응답했으며 '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 다각화' 27.0%,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가 21.1%, '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가 5.9%, '글로벌 사업 축소'가 1.2% 등으로 응답했다.

전북 지역 기업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약화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44.1%)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 시장 개척과 사업 다각화(27.0%), 원료 공급망 다변화(21.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전북 기업들이 '미·중 갈등 심화,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여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LX, 직원 이탈 감독 철저히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가족 명의 회사에 측량정보 무단 유출한 LX직원 파면

업무 성격상 무엇보다 공정한 업무 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 4선)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측량정보를 외부로 무단 출하한 적발돼 14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X의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측량정보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친형 및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등록된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가원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들에게 측량 장비 및 프로그램 운용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 업무 관련으로 업체에 연락하면 본인 이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처리하는 등 공사 자산, 업무 노하우, 비밀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해 온 것으로 밝혀져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LX 직원에 의한 측량정보 무단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공개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LX 직원인 B씨는 측량 파일을 내

려받고 외부 업체에서 측량에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한 후 본인의 웹메일로 2023. 7. 2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43건의 측량 파일을 유출했다 적발됐다.

또한,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C씨도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했다. 해당 직원은 은퇴 전 사내 은퇴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사무실 출근 의무가 없었지만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108회나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C씨는 퇴직일 이후에도 지사 휴무일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날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던 본인의 지문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측량파일 6건을 유출하기도 했다.

공사는 감사 끝에 B씨를 파면하고 C씨와 관련 업체 모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혐의자가 없는지 감사

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의원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LX 내부에 오래 전부터 끓어왔던 문제들이 이례야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LX는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관련 혐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만호 기자

전개공, 임직원 대상 언론응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18일 공사 사옥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효과적인 언론 대응 방안 습득을 위한 언론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균형 전북CBS 보도제작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언론의 이

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보도 자료 작성 방법 및 스피치 기법 △오보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언론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용자 관점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공사는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언

론 응대 역량과 보도자료 작성 능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업무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의 홍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호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교육



을 통해 언론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 24일 개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마지막날 전주실내체육관서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도내 28개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전북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오는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22~24일 중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우수기업 채용설명회 △구직자 정책지원 안내를 위한 공공정책관 △구직자 맞춤형 취업 컨설팅관 △실업률 저감 지원을 위한 취업준비관 등 총 50여개 부스로 구성된다.

1부(오전)와 2부(오후)로 나누어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1부는 중장년과 시니어 구인 중심 채용설명회와 PC를 활용한 이력서 작성지원 부스 등으로 구성되고, 2부에서는 청년층 구인 중심 채용설명회와 NCS 상담 등이 운영된다.

또한, 도내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당일 채용설명관에서 면접을 진행한 인원에겐 면접비 3만원



도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일자리페스티벌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페스티벌을 계기로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우수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인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전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1577-0365.or.kr)를 통해 23일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입사지원 전 자세한 상담과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1577-03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농진청, 디지털 정밀육종 분야 민관 전문가 간담회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육종 기술의 혁신으로 불리는 디지털 정밀육종 분야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18일 본청에서 민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정밀육종은 경험에 기반한 전통적 육종방법을 넘어 유전정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재배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육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주)농우바이오, (주)경농 등 식량, 원예, 축산, 유전체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연구자 등 산·학·관·연 담당자가 자리를 같이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밀육종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충북대학교 유주경 교수가 발표한 '민간 분야 디지털 육종 사례와 연구 동향'을 듣고, 민관 협력 분야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 디지털 정밀육종 체계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연구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작물의 표현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도입한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 5위 수준의 식물유전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디지털 정밀육종 기술 발전 기반도 갖추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환 농촌진흥청장은 "디지털 정밀육종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필수기술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